

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 후원: (국민은행) 856701-04-233309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인터넷총국	
분류	구역공과- 2019년 52과
제목	전도자의 작품5- 다민족 스쿨
성경	사도행전 8:26-40
일시/장소	2019년 12월 29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 (사도행전 8:26-40)**

-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 31/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 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나 자기를 가리킵이나 타인을 가리킵이나
-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 37/ (없음)
-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 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 원래는 다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다.
 ▶ 창3장,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12가지 인생 문제가 있을 뿐이다.

1. 같은 문제, 같은 답

- 1) 문화는 다르나 문제는 같다 → 창3:4-5, 창6:4-5, 창11:1-8
- 2) 삶은 다르나 답은 같다 → 창3:15, 창6:14, 창12:1-13
- 3) 사람의 방법은 만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똑같다 →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2. 시급하게 알려 주어야 할 것

- 1) 유대인이 모르는 것 세가지
 - (1) 원죄 → 창3장 사건
 - (2) 그리스도 → 3저주 해결(사탄, 지옥, 재앙)
 - (3) 재앙 → 재앙이 오는 이유를 모른다.
- 2) 전 세계가 모르는 것
 - (1) 우상의 심각성 → 사탄의 작품
 - (2) 종교의 본질 → 나 중심
 - (3) 영적 문제 → 숨은 고통
- 3) 강대국이 모르는 것
 - (1) 행19:21, 우상 시대
 - (2) 행23:11, 교권 시대
 - (3) 행27:24, 풍랑 시대

3. 시급하게 해 주어야 할 것

- 1) 치유해주라(행1:1, 3, 8) →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 2) 서밋으로 가게 해주라 → 3서밋(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
- 3) 중인이 되게 하라 → 행1:8

♣ **결론** → 다민족을 위한 시급한 기도제목

- 1) 3기업- 다민족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 3기업을 만들 기회이다.

- 2) 서밋 학교를 만들어 세계로 파고 들어라.
- 3) 치유 학교를 만들어 영적인 병을 고쳐주라.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 우리 이제 한해를 보내고 새 성전으로 가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행8:26-40이다.
 지금부터 기도제목은 바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후대까지 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불려서 제자 만드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 속에(행8:26-40) 다 들어 있다. 이미 에디오피아 권세 있는 내시가 지금 온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놨다. 이때 만약에 다른 소리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한 것이다. 본인이 자원해서 세례 받게 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제자로 만든 것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생 동안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 그게 다민족 살리는 길이다.
 다민족이 가고 오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다민족 스쿨”이라고 한 것이다.
 ▶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만든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

▶ **본론** -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다.

1. 같은 문제, 같은 답

▶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전 세계는 문제가 다 같은 문제다. 그래서 답도 같은 것이다.
 1) 문화는 다르나 문제는 같다 → 창3:4-5, 창6:4-5, 창11:1-8
 ▶ 문화가 다를 뿐이지, 문제는 똑같다.
 2) 삶은 다르나 답은 같다 → 창3:15, 창6:14, 창12:1-13
 ▶ 그리고 삶이 조금 다르죠. 그럴 뿐이지, 결국은 문제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답은 하나다.
 3) 사람의 방법은 만 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똑같다 →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은, 하나다. 이들을 복음화를 시켜야 되고요, 이들을 제자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가서 현장 살리도록 세계화 시켜야 된다. 이것 밖에 없다.
 ▶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선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를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제자를 불려서 키워서 다시 파송하는 게 제일로 정확한 길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된다. 보통 그냥 여러분이 모르고 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은 거의 한 80%는 속는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황 목사님, 칠레 같은 나라에 갔잖아요, 페루 갔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슬쩍 가서는 모른다. 그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또 제자들 만난 사람들 있으면 교회에다가 불려서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훈련시켜서 또 파송하고요.

2. 시급하게 알려 주어야 할 것

▶ 시급한 게 뭐냐?
 1) 유대인이 모르는 것 세 가지
 ▶ 그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르는 것 3가지 있다.
 (1) 원죄 → 창3장 사건
 ▶ 뭘 모르고 있느냐면 원죄가 뭘지 모른다. 그냥 자범죄는 아는데 원죄가 뭘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2) 그리스도 → 3저주 해결(사탄, 지옥, 재앙)
 ▶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지도 모른다. 사탄과 지옥과 재앙을 막은 정말 중요한 3가지 저주를 해결 한 것이다.
 (3) 재앙
 ▶ 이러다보니까 오는 게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을 오는 이유도 모른다.
 2) 전 세계가 모르는 것
 ▶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더 모르는 게 뭐냐?
 (1) 우상의 심각성 → 사탄의 작품
 ▶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이 우상숭배가 사탄의 작품인데 왜 이게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게 가지고는 아예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작품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도 주고 또 다 한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2) 종교의 본질 → 나 중심
 ▶ 이 종교는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중

교는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이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명상하고, 이런 식이다. 그러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된다.

(3) 영적 문제 → 숨은 교동

▶ 이리다보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다.

3) 강대국이 모르는 것

▶ 아니, 강대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이 뭘 모르는지 아십니까?

(1) 행 19:21, 우상 시대- 거의 우상 시대를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일본 가면 전 지역에 우상이다. 그게 얼마만큼 국민들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유럽 가보면 싹 다 그냥 마리아상이다. 지금 천국에서 제일 미안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일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자꾸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니까 얼마나 미안하겠는가?

(2) 행 23:11, 교권 시대- 그러니까 전부 강대국이란 자체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우상 시대가 만들어지고 나라는 크니까 힘이 있잖아요? 교권 시대가 만들어지고요.

(3) 행 27:24, 풍랑 시대- 그러니까 풍랑 시대가 오는 것이다. ▶ 시급하다. 여러분이 우리 생각으로 옳다, 나쁘단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더라. 틀린 얘기다. 여러분이 응답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기도 제목을,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틀린 언약을 잡고 있는데 응답이 왔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를 안다는 자체가 이긴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을 만났게 최고 축복이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밀어주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만나서 진도 운동 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많은 램넛들 쳐다보고 우리 부교역자들 쳐다볼 때 감사할 것이 앞으로 저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강대국도 모르고 있고 지식인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3. 시급하게 해 주어야 할 것

▶ 그러면 이 시급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세 가지죠.

- 1) 치유해주라(행 1:1, 3, 8) →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 오늘 빨리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급하다.
- 2) 서밋으로 가게 해주라 → 3서밋(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 치유 되어 지면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기능, 문화 서밋 3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 3) 증인이 되게 하라 → 행 1:8
▶ 그리고 이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할 것이다. 꼭 해야 할 일이다.

♣ 결론 → 다민족을 위한 시급한 기도제목

▶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은혜를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응답 받으면 12가지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올 것이다. 램넛들 중에서도 나오겠죠.

- 1) 3기업- 다민족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 3기업을 만들 기회이다.
▶ 3기업,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고 난 뒤에 올 수 있는 큰 응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솔직히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특별한 응답 받는 것을 말한다. 3기업이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서 밥 먹고 사는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완전 세계 선교, 교회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나까 불신자 가운데 많단니까요? 빌게이츠 같은 사람 보시라. 이 사람 엄청 사회에다가 공헌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도 아니고 몇 조씩 바친다.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막 사회 기업이라든지 문화 기업이라든지 이걸 많이 한다.
- 2) 서밋 학교를 만들어 세계로 파고들여라.
▶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서밋 학교도 만들고요.
- 3) 치유 학교를 만들어 영적인 병을 고쳐주라.
▶ 치유 학교도 만들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얘기했죠. 램넛들이 와서 서밋 훈련 받을 수 있는 편안한 24 현장이 있어야 된다. 병든 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24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37나라 살리려고 하면 3기업의 응답이 와야 된다. 이 서밋, 많은 237 민족들이 와서 24 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아주 귀중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고 헌금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막 선교 현장에서 떠돌고 어마어마한 교권 과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잘했는데도 언약을 놓쳤다,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언약만 바로 잡으면 응답은 따라온다.
▶ 오늘 1부 메시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왜 응답이 없느냐?” 그런 걱정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노예로 갔던 요셉은 망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다. 언약 속에 있었다. 감옥소까지 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언약 속에 있었다. 그게 전부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예배 때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셨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http://data.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856701-04-233309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인터넷총국